

역전 인생

데이빗리목사

홀리타임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
크리스찬
강력 추천

★★★★★
종교 분야
베스트 셀러

목차

CONTENTS

1. 꿈꾸는 소년: 시작과 특권 .. 8
2. 형제들의 음모: 미움의 씨앗 .. 29
3. 구덩이 속 절규: 암흑의 시작 .. 40
4. 감옥 속 지혜: 기다림과 준비 .. 57
5. 총리가 되다: 드라마틱한 반전 .. 76
6. 지혜로운 통치: 위기와 관리 .. 95
7. 재회와 시험: 형제들의 방문 .. 110
8. 거짓 속의 진실: 야곱의 아픔 .. 129
9. 베냐민과의 재회: 감춰진 눈물 .. 141
10. 은잔의 시험: 드러나는 진심 .. 158
11. 정체를 드러내다: 폭발하는 진실 .. 175
12. 야곱의 이주: 약속의 땅을 떠나 .. 190
13. 총리의 지혜: 기근 속의 정책 .. 206
14. 야곱의 마지막 축복: 언약의 계승 .. 220
15. 꿈의 완성: 믿음의 계승 .. 235

들어가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손에 들린 이 책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품은 한 소년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요셉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희로애락, 배신과 용서, 절망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 빛나는 채색옷을 입었던 순진한 소년은, 형들의 시기과 질투로 인해

차디찬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이국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거짓 누명으로 다시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버텼나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성실함과 지혜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꿈어 어린 시절의 꿈이 가장 기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형제들과 재회하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죄의 무게, 관계의 아픔,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4천 년 전의 옛이야기가 아님

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 즉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내의 시기와 질투, 억울한 상황, 기다림의 고통,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건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비참한 순간조차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요셉의 삶을 깊이 파고들면서, 당신 안에 숨겨진 꿈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위대한 꿈을 완성해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경이로운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당신의 삶에 스며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의의나무집회 이틀째날

데이빗리 목사



1.

꿈꾸는 소년: 시작과 특권



가나안의 헤브론 평야, 푸른 하늘 아래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열일곱 살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만큼이나 반짝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옷이 햇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세기 37장 3절)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중요했으며, 자손 번성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요셉은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첫아들이었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에 요셉은 야곱에게 라헬의 살아있는 흔적과

도 같았습니다. 고대 유대인에게 아내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으며, 남편은 그 아내의 자녀들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쏟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야곱의 가장 깊은 사랑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응축된 존재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끝에 만난 기쁨, 혹은 특별한 사연으로 더욱 마음이 쓰이는 존재 말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옷'을 특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케토넷'은 당시 사람들이 입던 일반적인 겹옷이나 튜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심'은 '손바닥' 또는 '발바닥'을 뜻하는 <파스>에서 유래하여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와 치렁치렁한 자락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특히 유목민 사회에서 이런 긴 소매의 옷은 활동하기에 매우 불편했기에, 주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 왕족, 제사장 혹은 특별히 우대받는 인물들

이 입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즉 여유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나 메소포타미아 유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화려한 옷을 입은 고위 인물들의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옷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옷은 요셉이 아버지의 눈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되는 지위, 어쩌면 가문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임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특정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미래의 리더십을 부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들에게 극심한 질투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명백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동시에 형들의 싸늘하고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어렴풋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는 않았을까요?

이 장면은 어쩌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편애'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모의 무의식적인 차별 대우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헌인 미드라쉬(Midrash)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편애가 결국 요셉의 고난과 이스라엘 자손의 이집트 노예 생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능한 존재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사랑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편애의 아픔을 겪거나, 혹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은 없으신가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공평함과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편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편애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

에 공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4절)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이복형제들 사이에는 혈연적인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두 종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형제들은 대부분 레아나 종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서열과 지위 차이는 자녀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신분과 혈통이 자녀의 위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종종 가족 내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노골적인 사랑은 형들에게는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자, 자신들의 초라함을 상기시키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 '온전함', '안녕', '화목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평화롭고 건강한 대화가 불가능했으며,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 공동체 간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샬롬'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관계가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움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형들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을 테니, 그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은 요셉을 향한 증오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들 때, 그것이 결국 관계 단절은 물론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구절은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시기과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 안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드는 대상을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로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손의 미덕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 5절)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깊은 증오를 헤아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열일곱 살 소년의 순수함은 자신이 꾸는 꿈의 엄청난 의미와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칠 파장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다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꾸는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꿈이 가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숙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요셉은 순진했지만, 그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종종 신의 계시로 여겨졌으며, 꿈 해몽은 중요한 지혜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왕이나 중요한 인물들은 꿈을 통해 신의 뜻을 구하고 미래를 예견하려

했으니, 요셉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7절)

이 꿈은 요셉의 미래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언적인 계시였습니다. 곡식 단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곡식 단은 생존과 번영의 핵심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가나안은 농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으며, 풍성한 수확은 곧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다른 단들이 절한다는 것은 그가 생존의 문제에 있어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즉, 요셉이 가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를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미 불만에 가득 찬 상황에서, 막냇동생이 자신들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듯한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다면, 심한 불쾌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8절)

형들은 요셉의 꿈을 단순한 소년의 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와 결합하여, 요셉이 자신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야망으로 비쳐졌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는 비난은 단순히 요셉의 꿈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미워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사네>는 ‘증오하다’, ‘적대시하다’는 의미로, 그들의 감정이 이미 단순한 시기를 넘어 극심한 적대감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와 분별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비전은 때로 주변의 오해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하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꿈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그 꿈을 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은 형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내를, '열한 별'은 열한 명의 형제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온 가족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에 아버지 야곱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의 위계질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자였고, 그 아래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순서대로 존경과 복종을 표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러한 사회적 질서에 정면

으로 도전하는 듯 보였기에, 야곱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곧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 10절)

야곱은 아들의 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기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했던 당시 사회에서, 막내와 다름없는 요셉이 가족 모두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것은 아들의 교만을 경계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꿈을 단순히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과 함께 요셉의 꿈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이 꿈이 단순한 소년의 상상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의 시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무의식중에 알았기에 더욱 분노하고 거부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반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는 구절은, 그가 이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직감하고 미래를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간직하다', '지키다', '보존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의 꿈이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것을 어렵פות이 예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꿈은 때로 당신

자신조차 당황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야곱처럼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계획을 암시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순진했던 소년은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둘러싼 분노의 불길을 더욱 키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눈은 날마다 요셉을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요셉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이 머지않아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형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의 숨겨진 분노가 곧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신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통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성취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37장 1-11절

묵상 질문

야곱의 편애와 그 영향 (창세기 37장 3절): 야곱은 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 편애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의 삶

이나 가정 속에서 이런 '편애'의 경험이 있었나요?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채색옷의 상징과 형들의 시기 (창세기 37장 3-4절):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케토넷 파심>)'은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형들에게는 왜 그토록 큰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재능, 은사, 혹은 지위가 있나요? 그것이 때로는 당신을 돋보이게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시기를 불러온 경험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꿈을 말하는 요셉과 형들의 증오 (창세기 37장 5-8절): 순진했던 요셉은 자신이 꾸는 꿈(곡식 단, 해와 달과 별)을 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들의 미움은 왜 더욱 깊어졌을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이나 가진 것을 보며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봅시다.

야곱의 반응과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37장

10-11절): 야곱은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꾸짖었지만,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꿈이나 비전은 때로 당신 자신조차 이해하기 어렵거나 주변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삶에 적용

관계 속 편애와 질투 극복하기: 요셉 이야기에서 보듯이, 편애와 질투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혹시 알게 모르게 편애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 요셉의 꿈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

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지금은 그 꿈이 비현실적이거나 막연해 보여도, 요셉처럼 그 꿈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말과 태도의 중요성: 요셉은 순진하게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때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과 태도를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 오늘 하루 어떻게 노력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봅시다.

성경 퀴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지어 입힌 옷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 꾸는 꿈에서,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에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창세기 37장 4절)

요셉이 꿈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몇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했나요?

기도문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편애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특별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꿈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꿈이 비록 지금은 막연하고 때로는 주변의 반발을 살지라도, 야곱처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지혜

를 주셔서,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형제들의 음모: 미움의 씨앗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의 가족에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기 위해 세겜으로 떠났고, 얼마 후 풀을 찾아 더 북쪽인 도단까지 이동했습니다. 헤브론에 남아 있던 야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염려되었습니다.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양 떼는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으므로, 이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장거리 목축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일곱 살 요셉에게 이 먼 길을 떠나 형들에게 가보라고 명했습니다. 채색옷을 입은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익숙한 헤브론을 떠나 미지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헤매던 중,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요셉의 순진한 마음을 얼마나 깊이 해칠지, 요셉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염려하는 양 떼와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

는 아들의 모습이었으나, 동시에 그의 순진함이 형제들의 악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창세기 37장 18절)

도단 평원에 도착하여 멀리서 형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요셉의 얼굴에는 아마 반가움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스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시기와 미움이 독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죽이기를 꾀했다’는 성경의 표현은,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깊고 극단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니크루>는 ‘음모를 꾸미다’, ‘속셈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계획적인 악행을 암시합니다.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악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꿈과 아버

지의 편애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듯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19-20절)

‘꿈꾸는 자’라는 형들의 조롱 섞인 호칭은, 그들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의 꿈을 비웃으려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 그의 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움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때 어떤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족의 명예와 혈연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곧 공동체의 유지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해하는 것은 가장 큰 불명예이자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음으로써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편애와 요

셉의 꿈이라는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영원히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 대한 극심한 분노나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갇아먹고, 당신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끔 부추기지는 않았을까요? 형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어두운 그림자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감정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복수심이 가장 비참한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상처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직면하고 다스릴 힘을 줍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분노와 시기심이 싹틀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

어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감정들을 제어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대신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37장 12-22절

묵상 질문

아버지의 염려와 요셉의 순종 (창세기 37장 12-14절): 야곱은 왜 요셉을 멀리 있는 형들에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의 염려나 기대를 받고 순종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순종이 때로

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형들의 극단적인 증오 (창세기 37장 18-20절): 형들은 요셉을 보고 왜 그를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며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시기, 질투, 분노)이 극단적인 살해 음모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 대한 극심한 분노나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갇아먹고, 어떤 위험한 생각을 품게 했는지 돌아봅시다.

르우เบน의 양심 (창세기 37장 21-22절): 맏형 르우벤은 왜 형제들의 살해 음모를 막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을까요?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함께,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나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옳은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때로는 완전한 선이 아니더라도, 더 큰 악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꿈을 비웃는 자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꿈이나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의 꿈을 어떻게 지켜나갔나요? 혹은 당신의 꿈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삶에 적용

분노와 시기심 다스리기: 형제들의 이야기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와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을 위한 작은 용기: 르우벤처럼, 완전한 선을 행하기 어렵더라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침묵하는 것보다 작은 행동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믿고 나아가기: 요셉은 자신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음모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고난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요셉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성경 퀴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기 위해 먼저 어느 곳으로 떠났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기 전에 형들이 머물고 있던 정확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를 무엇이라고 조롱하며 죽이려 했나요?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어디에 던지자고 제안했나요?

기도문

공홀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형제들의 음모와 요셉의 고난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숨어있는 시기심과 분노의 씨앗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요셉이 억울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르우벤처럼, 불의한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을 위해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합력

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구덩이 속 절규: 암흑의 시작



형들의 살벌한 음모가 오가는 대화 속에서
도 요셉은 그저 형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
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마쳤다는 생각에, 혹은 그동안 소원했던 형들
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순진한 발걸
음은 끔찍한 비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단
평원의 바람은 평소처럼 불었겠지만, 그날은
요셉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차가운 바람이었
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었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
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3-24절)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마자, 형들은 지체
없이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형제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상
징이자 그의 자부심이었던 '채색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벗겼다'는 동사 <파샤
트>는 '벌거벗기다', '빼앗다'는 강한 의미를 가
집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벗긴 행위를 넘어, 요

셉에게서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그리고 그가 누리던 모든 특권을 잔인하게 빼앗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형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랑스럽게 입었던 그 옷은 한순간에 산산이 찢어져 바닥에 내던져졌을 겁니다.

요셉은 비명을 질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들! 제발 저를 해치지 마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지만, 형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덩이'는 <보르>로, 보통 물을 저장하거나 때로는 죄수들을 가두는데 사용되던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는 목마름으로 죽거나, 맹수나 독충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은 없었지만, 추위와 어둠, 그리고 갇혔다는 공포가 그의 어린 몸과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구덩이 아래에서 요셉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돌벽에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채, 암흑 속에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

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배신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 그리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미지의 두려움이 그의 어린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고, 아무도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은요? 요셉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은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구덩이는 비단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나락, 절망과 고독이라는 심리적인 구렁텅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때로 '구덩이' 속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이 자신

과 함께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그러나 깊은 신뢰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고난을 통해 그분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요셉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침묵 가운데 인내하는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시편 기자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결국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았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창세기 37장 25절)

형들은 구덩이 속 요셉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잔인함과 동생에 대한 무감각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공

동체와 연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평화와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식사를 자신들이 방금 해코지한 동생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태연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식욕조차 막지 못할 만큼 무더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낙타에 향품과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향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경제적으로 번성한 대국이었고, 여러 물품과 함께 노예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주로 향신료 무역에 종사했지만, 노예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무역로를 통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노예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요 교역로였던 '왕의 대로'나 '해변 길'을 통한 상업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그

의 말을 들었더라” (창세기 37장 26-27절)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그의 말은 실리적인 계산과 함께, 살인이라는 더 큰 죄책감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피를 덮어둔들'은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한 것은, 이 잔혹한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나 관계를 쉽게 저버립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유혹이 당신의 양심을 흔들고 있나요? 물질적 이득 앞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흐려지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유다의 제안은 살인이라는 직접적인 피 흘림을 피했지만, 노예 매매라는 또 다른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피하려다 더 은밀하고 비겁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줍니다.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와 숨겨진 죄악까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37장 28절)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이십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이십은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과 유사한 금액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5절을 보면 5세에서 20세 남자의 몸값이 은 20세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1세겔은 약 11.4그램의 은에 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이 비극적인 순간은, 인간의 죄성과 탐

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에게 버려진 채, 낯선 이방의 땅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낯선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지를 때, 요셉의 어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가족의 따뜻함, 아버지의 사랑, 꿈 많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세기 37장 29-30절)

나중에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큰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며 통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탄식인 '아이가 없도

다 나는 어디로 갈까'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앞으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고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지 직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어 <하찰>은 '구하다', '구출하다'는 의미로, 르우เบน의 내면에 일말의 인간성과 양심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끔찍한 배신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 피에 적셔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고, 야곱은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 옷을 알아보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창세기 37장 33절).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겼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되어 대대손손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감추려 했던 죄가 어떻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시기심과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권과 꿈이 오히려 고통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나락으로의 추락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계획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배신이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구덩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이끌고 계실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제 낯선 땅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구덩이 속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37장 23-36절

묵상 질문

빼앗긴 존엄성 (창세기 37장 23절): 형들이 요셉에게서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행위는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히브리어 <파샤트>가 가진 '벌거벗기다', '빼앗다'는 의미를 통해 형들의 잔인함과 요셉의 상실감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살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존엄성이 훼손당했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구덩이 속 절규 (창세기 37장 24절):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느꼈을 공포, 절망,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빈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어떤 심리적 공간이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절망과 고독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나눠봅시다.

죄책감 없는 식사 (창세기 37장 25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인간의 잔인함과 무감각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잘못이나 타인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한 경험은 없었나요?

유다의 제안과 죄의 거래 (창세기 37장 26-28절):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그의 말과 '은 이십'이라는 대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적 이득이나 상황 회피를 위해 소중한 가치나 관계를 저버렸던 당신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르우เบน의 탄식과 야곱의 슬픔 (창세기 37장 29-35절): 뒤늦게 구덩이에 돌아온 르우벤은 왜 그토록 절망했고,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거짓말이 낳은 고통은

어떻게 가족 전체를 집어삼켰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거짓말이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본 적이 있나요?

삶에 적용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 찾기: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역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죄의 대가와 회개: 형제들의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은 요셉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죄는 결코 숨겨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관계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

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기: 요셉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당장 보기에는 불행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현재 겪는 고난이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성경 퀴즈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 강제로 벗겨진 옷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디에 던져 넣었나요?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은 후, 무엇을

하면서 앉아 있었나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형제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얼마에 팔았나요?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찢으며 슬퍼했나요?

기도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비참한 고난을 묵상하며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저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 좌절, 깊은 절망의 구덩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처럼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형들의 잔인함과 유다의 실리적인 제안 속에서, 인간

의 죄성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시기,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저의 삶의 아픔과 역경이 주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감옥 속 지혜: 기다림과 준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는 요셉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었고, 그의 순결은 짓밟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노예에서,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삶의 바닥으로 더 깊이 추락한 듯 보였지만, 요셉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처럼 불의와 억울함에 직면하여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버텼나요?

“그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0절)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거짓말만 믿고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이트 핫소하르>는 직역하면 '감금의 집' 또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고대 애굽의 감옥 시스템은 현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감옥은 주로 정치범이나 중죄인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었고, 보디발이 고위 관료였기에 그가 요셉을 가둔 곳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바로 왕실과 관련된, 즉 왕의 직접적

인 처벌을 기다리는 자들을 가두는 '궁중 감옥'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곳은 단순히 수감하는 것을 넘어, 고문과 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극도로 경비가 삼엄하고 악명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고, 구덩이에서 팔려와 보디발 집의 총무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그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전에 겪었던 구덩이 속 고통이 다시 재현되는 것만 같아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1절)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심이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자를 더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로, 단순히 '자비'나 '사랑'을 넘어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곧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사랑과 지지를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상황, 즉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당장 바꾸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주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가장 깊이 경험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이 끝없이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구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초월하여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힘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압도되어 절망하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2-23절)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장은 모든 죄수 관리와 감옥의 제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고, 심지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전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전 챕터에서도 나왔던 <마칠리아흐>로, ‘번성하다’, ‘성공하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잃지 않았던 성실함과 지혜로 또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대 애굽 사회는 계급이 분명하고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재능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하며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해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요셉은 감옥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했고, 그 결과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암울할지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요셉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의 내

면은 이미 리더의 자질로 충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신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 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짓고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궁중의 관원장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를 지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다루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죄는 왕에 대한 반역이나 암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의 지시로 그들을 시종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옥에 갇힌 지 얼마 후에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니 꿈의 내용이 다르더라” (창

세기 40장 5절)

어느 날 아침, 두 관원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에게 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 자신도 꿈을 통해 신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믿었으며, 꿈 해몽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꿈은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 능력은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은사였지만, 이제 감옥에서 인내와 겸손을 통해 더욱 연단되고 무르익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민감성은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8절)

여기서 요셉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히브리어 <로 하알라 에트>는 직역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강한 수사 의문문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해석자 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당시 애굽의 미신적인 꿈 해몽가들과는 차별되는 요셉의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창조주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되어 바로에게 다시 술잔을 드리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목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모든 것을 초월함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복

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형편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
다” (창세기 40장 14-15절)

요셉은 자신의 해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
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어서'라는 그의 말 속에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
어나고 싶은 인간적인 절박함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
을 호소하며, 자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내비
쳤습니다. 이 순간은 요셉의 오랜 기다림과 희
망의 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인간적인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
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균
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
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
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과 기
도를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를 잊었더라”(창세기 40장 23절)

하지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간결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지만, 이 한 구절 속에는 요셉이 겪었을 또 한 번의 깊은 좌절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카흐>는 ‘잊다’, ‘소홀히 하다’는 의미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무시했거나, 혹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해지자 쉽게 잊어버렸음을 암시합니다. 가장 큰 희망이 보였던 순간, 그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잊혀짐’의 시간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 주나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기대를 걸었지만, 그가 당신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려 깊은 실망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적인 기대는 종종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이 2년의 추가 시간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요셉을 더욱 깊이 연단하시고, 애굽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더 큰 역할을 위한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잊혀짐'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잊혀진 듯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단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갈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잊혀짐'의 순

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39장 20절 - 40장 23절

묵상 질문

예상치 못한 절망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신뢰받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한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나 억울함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 (창세기 39장 21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 혹은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역경 속의 성실함 (창세기 39장 22-23절): 요셉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어 모든 사무를 맡게 됩니다. 요셉의 어떤 태도와 성실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비록 힘들고 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겸손한 지혜 (창세기 40장 8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요셉의 겸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이 어떤 성공이나 재능을 인정받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잊혀짐의 기다림 (창세기 40장 14-15절, 23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이 보였던 순간에 찾아온 '잊혀짐'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약속이 잊혀져 깊은 실망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때 당신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렸나요?

삶에 적용

절망 속 하나님의 임재 찾기: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연이어 추락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올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훈련의 시간으로서의 역경: 감옥은 요셉에게 절망적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연단하고

더 큰 역할을 위한 지혜와 인내를 가르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미래의 어떤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선 다하기와 기다림의 균형: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적인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옥은 어떤 종류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요셉과 함께하

여 그에게 은혜를 받게 했나요?

간수장은 옥중 죄수들의 모든 사무를 누구의 손에 맡겼나요?

바로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의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 모두 작성)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몇 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나요?

기도문

역경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이 겪은 깊은 절망과 감옥에서의 기다림을 묵상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듯이 저와도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성실하게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의 작은 노력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의 능력이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인간적인 기대가 좌절될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의 고난이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훈련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총리가 되다: 드라마틱한 반전



요셉이 감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애굽 전역을 뒤흔들 만한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애굽의 파라오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하여, 왕궁의 모든 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즉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깰즉 꿈이라” (창세기 41장 1-7절)

바로의 꿈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불길했습니다. 살찐 소와 충실한 이삭이 파리한 소와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고 삼켜지는 꿈이었죠. 당시 고대 애굽인들에게 나일 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풍요의 상징이었고,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의 현현으로 믿었으며, 그가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성한 메시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풀리지 않는 왕의 꿈은 국가적인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바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기 위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41장 8절)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는 데 능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점술가' <하르툼임>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현인들' <하카임>은

학문과 지혜를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 최고 지식층으로 존경받았고, 왕에게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만큼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영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을 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바로의 번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듯,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의 답답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잊혀졌던 한 인물이 기적처럼 기억 속에서 소환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창세기 41장 9절)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

던 일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나 이다'라는 그의 고백은, 요셉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부도덕함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타티>는 '내 죄'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간과가 아닌 도덕적인 잘못,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은혜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직 후 그를 잊어버린 것이 뒤늦게 왕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함을 잊었거나,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술 맡은 관원장의 뒤늦은 기억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잊혀진 누군가를 기억하는 작은 양심의 움직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망각과 죄성까지도 당신의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삶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처럼, 잊혀진 양심의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부여하여, 눈에 보이는 손실과 이득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억과 양심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게 종이 하나 있으니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 그가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되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 나이다” (창세기 41장 12-13절)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들은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부르도록 명했습니다. 감옥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잊혀진 죄수 요셉에게 왕의 부름이라니, 그 어떤 죄수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

기까지,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벅찬 기대감과 함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이 기회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 13년간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어렵פות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창세기 41장 14절)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왔고,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당시 애굽 문화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예의였으며, 죄수의 오명을 벗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위생을 중시하여 수염을 기르지 않았고, 특히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청결하게 단장해야 했습니다. 죄수복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그의 신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끝에, 드디어 그의 이름이 불린 것입

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5-16절)

바로의 질문에 요셉은 망설임 없이, 그리고 확고한 신앙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히브리어 <벨 아누키>는 ‘나는 아니다’, ‘내가 없이는’이라는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연단된 그의 겸손함과 확고한 신앙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얻은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요셉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이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요셉은 지체 없이 그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칠 년 흉년이니라” (창세기 41장 26-27절) 이어서 7년 풍년 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닥쳐올 것이며, 이 흉년은 풍년의 모든 축복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설명했

습니다. 이는 단순한 꿈 해몽이 아니라, 애굽의 경제적, 사회적 미래를 예측하는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경제 구조와 나일 강의 범람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꿈을 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위기에 대비할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그 외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그 곡물을 모아 들여 각 성읍에 쌓아 두고 바로의 손에 관리하게 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여 양식을 저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33-36절)

요셉의 제안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탁월한 행정적, 경제적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그의 제안은 자신을 추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의 진정성

은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였고, 파라오의 권력 아래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는 지혜가 인간적인 통찰을 넘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창세기 41장 38-40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 엘로힘>의 감동을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교적인 애굽의 파라오조차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

연적인 능력을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총리가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것을, 세마포 옷은 고위 관료의 복장을, 금 사슬은 명예와 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당시 애굽에서 '총리'는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직으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거에 태워 애굽 전역을 다니게 하며 백성들에게 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렉>이라는 외침은 '끓어 옹드려라' 또는 '애굽의 아버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요셉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지 13년 만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은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는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뒤바뀌는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믿음과 겸손함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겸손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성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1-40절

묵상 질문

바로의 번민과 인간의 한계 (창세기 41장 1-8절): 바로가 꾸 꿈은 무엇이었으며, 그 꿈이 바로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깊은 번민과 좌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잊혀짐 속의 기회 (창세기 41장 9-13절):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바로의 꿈 앞에서 뒤늦게 요셉을 기억해냈을까요? 잊혀진 줄 알았던 요셉의 존재가 바로에게 보고된 이 사건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잊혀졌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경험이나 능력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기회로 작용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 (창세기 41장 15-16절): 바로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능력 대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겸손하고 신실한 태도는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어떤 성공이나 재능을 인정받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진정한 겸손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기 속 지혜와 준비 (창세기 41장 25-36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삶에서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의 위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요셉처럼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상치 못한 총리 임명 (창세기 41장 38-40절):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당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나 기적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나

요? 혹 당신의 지금 처한 낮은 자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더 높은 자리로 향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삶에 적용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을 어떻게 연단하고 있나요? 이 시간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바로에게 불러가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조급함과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

각해 봅시다.

영적 리더십의 발휘: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요?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

바로가 잠에서 깨어 불안해했던 두 가지 꿈에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가 꾸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 왕의 번민을 더욱 깊게 했던 애굽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던 바로의 신하 중,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한 관원장의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나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애굽 땅에 몇 년 풍년과 몇 년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며 그에게 끼워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기도문

능력과 섭리의 하나님,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오르는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경탄합니다. 저의 삶에도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하는 번민과, 잊혀진 듯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의 때를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를 높이셨듯이, 저

의 삶에도 주님의 선한 때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어더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저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비록 지금은 낮은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지혜로운 통치: 위기와 관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더 이상 꿈 많은 소년이나 억울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서른, 삶의 절반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요셉은 그 권한을 사용하여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앞에 물러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야차>는 '나가다', '떠나다'는 의미인데, 이는 요셉이 단순히 앉아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애굽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농업 국가였으며, 각 지역마다 농업 생산 방식과 기후 조건이 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것은, 그가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곡물 저장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권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치 유능한 최고 경영자가 현장을 파악하듯, 요셉은 애굽의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 능력은 13년간의 노예 및 감옥 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요셉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현장을 살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와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맡은 바에 충실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해져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매 요셉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동안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가운데에 저장하였으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창세기 41장 47-49절)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동안 애굽 땅에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마르>로 '넘쳐흐르다', '산더미처럼 쌓이다'는 의미를 가지며, 비옥한 나일 강 유역이 상상 이상의 풍요를 누렸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고대 애굽은 나일 강의 규칙적인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로 인해 풍년에는 엄청난 곡물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이 풍년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계획하여 각 성읍에 곡식 창고를 짓고, 밭에서 나는 곡물의 오분의 일(20%)을 거두어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분의 일'은 고대 근동에서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나 공물 비율로 흔히 사용되던 수치였으며, 이는 요셉이 당시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가운데에 저장하였으며'라는 구절은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를 위한 그의 치밀한 행정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곡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각 지역에 신속하게 곡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저장된 곡식은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엄청난 수량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 '풍년'과 같은 시기, 즉 재물이 늘거나 건강이 좋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축복의 시기가 찾아올 때, 당신은 그 풍요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요셉은 단순히 현재의 풍요를 즐기지 않고, 다가올 위기를 내다보며 지혜롭게 대비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시간, 재물, 재능, 건강)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대비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풍요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

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히브리어 <메나쉼>로 '잊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아픔과 가족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히브리어 <에프라임>으로 '번성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들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고난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도 기억의 치유와 새로운 번성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칠 년 풍년이 애굽 땅에 있고 그 후에 요셉의 말과 같이 칠 년 흉년이 시작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창세기 41장 53-54절)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걸쳐 대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기록들, 예를 들어 '7년 기근 비문'과 같은 역사적 자료들은 비록 요셉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나일 강의 범람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기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여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요셉의 지혜로운 대비 덕분에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정책 덕분에 애굽 백성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애굽의 국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창세기 41장 55절)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구해 부르짖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백성들은 요셉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생사여탈권을 쥐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이 명령은 요셉의 권위가 왕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애굽 사회에서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에 있는 애굽인에게 팔며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6-57절)

요셉은 저장해 둔 곡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곡물을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는 당시 애굽의 경제 시스템

템과 조세 정책을 고려한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실리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 없이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훗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요셉의 총리로서의 지혜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식량 배급자가 아니라, 한 문명권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삶에서 위기 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의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요셉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원을 통해, 당신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지위

와 능력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세상을 섬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단순히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1장 46절 - 57절

묵상 질문

현장을 누비는 리더십 (창세기 41장 46절):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의 앞에서 물러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어

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신의 삶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를 관리하는 지혜 (창세기 41장 47-49절):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곡물을 관리하고 저장했나요?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라는 표현은 요셉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나요? 당신의 삶에 풍요의 시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름에 담긴 고백 (창세기 41장 50-52절):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므낏세, 에브라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고난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당신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 또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 (창세기 41장 53-55절):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의

리더십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명령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 (창세기 41장 56-57절):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백성들까지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가 단순히 한 나라를 넘어 더 넓은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자원을 통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삶에 적용

미래를 대비하는 삶: 요셉은 다가올 7년 흉년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다

양한 위협에 대해 요셉처럼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풍요 속에서 겸손 유지하기: 요셉은 풍년 동안 엄청난 곡물을 비축하며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에게 풍요와 성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살리는 리더십: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애굽 백성뿐 아니라 주변 국가 백성들까지 기근에서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성경 퀴즈

요셉은 총리가 된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

요?

7년 흉년 동안 애굽 땅의 토지 소출은 어떠했
나요? (수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답해주세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7년 흉년 후, 애굽 땅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
나요?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백성들은 누구에게 양식
을 구했나요?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나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양식을 사기 위
해 어느 나라 백성들도 애굽으로 왔나요?

기도문

지혜와 통치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묵상하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

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풍요의 시기에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재회와 시험: 형제들의 방문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양식이 풍부했지만,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먹을 양식이 바닥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 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창세기 42장 1-2절)

야곱은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서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말 속에는 가장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은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것이었으며, 식량 확보는 곧 가족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바로 애굽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애굽의 풍요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땅에도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열 명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막내아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다른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창세기 42장 4절).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특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지키려는 야곱의 필사적인 마음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요셉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야

굽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드러냅니다.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자이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2장 6절)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총리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요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가장 극진한 예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요셉이 어릴 적 꾸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곡식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17세 소년의 순진한 꿈은, 13년의 고난과 기다림 끝에 이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벅찬 감격, 형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비극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순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을 것

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일하심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그들이 팔아넘긴 히브리 소년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애굽 복장, 애굽식 이름(사브낏바네아),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은 그들의 기억 속 요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당시 총리는 직접 백성을 대면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 엄격한 의전과 위엄을 갖추었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아는 체하나 그들에게는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나칼>은 '알아보다'는 뜻이고, <나칼>의 반대말은 '알아보지 못하다'인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세기 42장 9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생각하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에 품다', '기억 속에 떠올리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릴 적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자, 형들의 회개를 시험하고 그들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형들이 지난 13년간 얼마나 변했는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의 안위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연단된 지혜와 영적 분

별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형들은 총리의 엄한 말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고, 특히 국경 지역의 보안에 민감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은 곧 사형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며,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요 정직한 자들이니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창세기 42장 11절)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배경을 이야기하며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대 유대인들이 가족의 혈통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믿지 않는 척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창세기 42장 12)

절)

그리고는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했던 그 무감각함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요셉이 사흘 만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살 것이라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창세기 42장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결코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레 엘로힘>은 단순히 '두려워하다'를 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다'는 깊은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고, 동시에 형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돌아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로서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둔 유일한 동생이었기에, 요셉에게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요구는 형제들의 진실성과 회개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요구에 두려워 떨며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13년 전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

암아 죄책을 당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창세기 42장 21-22 절)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책을 당하였도다'라는 히브리어 <아 살마누>는 '죄를 범하다', '죄로 인해 고통받다'는 의미로, 그들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려 왔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걸할 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과거의 행동이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피 값'이 되어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르우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형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형들의 고백은 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죄가 결코 감추어지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의 뒤늦은 죄책감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감추려 하거나, 그 결과를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역사의 한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할수록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고통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통변을 그들 사이에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 울고” (창세기 42장 23-24절)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복받쳐 올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울었습니다. ‘울고’라는 히브리어 <바카>는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소리 내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 때문만

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뒤늦은 회개와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울음은 복수심이 아닌 용서와 회복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품는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다시 돌아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잡아 그들의 보는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요셉은 그를 붙잡아 다른 형제들에게 경고를 주고, 동시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곡식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라, 13년간 묵혀두었던 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작동하는 재회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용서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십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2장 1-38절

묵상 질문

야곱의 절박함과 편애의 그림자 (창세기 42장 1-4절): 야곱은 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고 재촉했을까요? 또한, 야곱이 막내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서 당신은 부모의 절박함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편애의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과,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된 결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꿈의 성취와 요셉의 복잡한 심정 (창세기 42장 6-9절):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은 과거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꿈의 성취 앞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떤 감정들로 뒤섞였을까요? (감격, 슬픔, 복수심, 섭리에 대한 경외심 등)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시험하는 이유: 용서인가, 확인인가? (창세기 42장 7-20절): 요셉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시험했을까요? 요셉의 행동은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의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은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상대를 용서하

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나요?

죄책감의 드러남 (창세기 42장 21-23절):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제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책을 당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지난 13년간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왔음을 보여주나요?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거나 인정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요셉이 형들의 고백을 듣고 울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두려움과 불신 속으로의 귀환 (창세기 42장 25-38절):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과 야곱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신에 시달립니다. 죄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관계를 불신으로 가득 채우나요? 당신의 삶에서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삶에 적용

용서와 화해의 과정 이해하기: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시험,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눈물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용서하고 싶지만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화해를 위해 당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결국 그 행동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겪는 고난이나 타인의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섭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죄의 대가와 책임감: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죄의 대가를 오랜 시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치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나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신과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성경 퀴즈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할 때, 어느 아들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나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어떻게 절했나요?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무엇이 라고 몰아붙였나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기간은 며칠이었나요?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책을 당하였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행동으로 설명해주세요)

요셉은 형들 중에서 누구를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남겨두었나요?

형제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후, 야곱은 어떤 상황 때문에 다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주저했나요?

기도문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 이야기를 묵상하며, 죄의 무게와 용서의 어려움,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 삶에서 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요셉처럼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의 죄책감에 갇히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서 친히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고백처럼,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8.

거짓 속의 진실: 야곱의 아픔



형제들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간신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기묘한 일들과 총리의 엄한 얼굴은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발견하고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그릇에서 쏟아낼 때에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그릇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42장 35절)

곡식 자루를 풀던 형제들은 뜻밖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돈뭉치’는 <체루르 하케세프>로, ‘은 주머니’나 ‘은 묶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곡물 거래는 보통 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돈뭉치가 자루 안에 다시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죄에 연루된 듯한 불안감과 함께 더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과 아버지 야곱

모두 이 알 수 없는 상황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가 발각되어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죄의 어둠은 이처럼 끝없이 사람을 쫓아다니며 불안과 공포를 심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죄가 이제 자신들을 옴아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은 죄가 가져다주는 내면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숨기려 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맏형 르우벤은 시므온을 구하고 곡식을 더 얻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르우벤은 과거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던 것

처럼, 이번에도 시므온을 구하고 가족을 살리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우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 오리이다”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자신들의 아들들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아들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것은 극심한 절박함과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은 죽었고 시므온도 없으니 너희가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 하는도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창세기 42장 36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시므온마저 애굽에 남겨진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휩

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데다'라는 야곱의 탄식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실감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들이 자신의 말을 왜곡하고, 심지어 음모를 꾸민다고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심의 씨앗을 뿌려 관계를 파괴합니다. 야곱의 눈에는 형제들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고, 그의 마음 속에는 요셉을 잃었던 그날의 비극이 다시 베냐민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러한 불신과 상실감의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섭리를 믿는 대신, 눈앞의 상황과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야곱의 슬픔은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

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그가 갈 길에서 재난을 당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히 막내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유산이자 요셉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흰 머리'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요셉을 잃은 비통함으로 깊어진 주름을 상징합니다. '스올'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죽은 자들의 세계, 즉 음부였습니다. 그는 베냐민마저 잃으면 자신이 슬픔 속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상실감이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단호한 거절은 형제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다 먹어갈 때까지 베냐민을 데려

갈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온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픔은 그들의 죄가 가져온 또 다른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시험대였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요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할 때, 무엇이 당신을 붙들고 있나요?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2장 35-38절

묵상 질문

예상치 못한 두려움 (창세기 42장 35절): 형제들이 곡식 자루 속에서 돈뭉치를 발견했을 때 왜 그토록 두려워했나요? 이 두려움은 과거의 어떤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과거의 잘못과 연결되어 두려움에 빠졌던 경험이 있나요?

야곱의 깊은 상실감 (창세기 42장 36절):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 때문에 시므온과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라는 야곱의 탄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깊은 상실감이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무너진 신뢰 (창세기 42장 36-38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죄와 거짓말이 어떻게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부모의 사랑과 집착: 야곱에게 베냐민은 '요셉은 죽고 그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사랑은 때로 베냐민에게 대한 집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집착이나 과잉보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삶에 적용

트라우마와 불신 다루기: 야곱의 삶은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

이 필요할까요?

죄의 영향력 깨닫기: 형제들의 죄는 요셉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남은 생애를 슬픔과 의심으로 물들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 주변의 관계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신뢰하기: 야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더 큰 선을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신뢰하시나요?

성경 퀴즈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곡식을 쏟아낼 때, 각 사람의 곡식 그릇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나요?

야곱은 요셉의 어떤 아픔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극도로 주저했나요?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나요?

맏형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자신들의 아들들까지 무엇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나요?

기도문

슬픔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깊은 아픔과 형제들의 죄책감을 묵상하며, 죄가 관계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깨닫습니다. 제 삶에서 과거의 아픔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께 서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의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선하신 섭

리가 모든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저의 잘못과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제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베냐민과의 재회: 감춰진 눈물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양식이 풍부했지만,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먹을 양식이 바닥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창세기 43장 1-2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기근이 심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베드>로 '무겁다', '심각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상황의 위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애굽 총리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 42장 20절)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 8-9절)

유다의 말은 르우เบน의 맹세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내세웠던 것(창세기 42장 37절)에 비해,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베냐민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담보가 되오리니'라는 히브리어 <아레브>는 '보증하다', '책임지다'는 의미로, 유대인 사회에서 계약 관계나 약속을 맺을 때 사용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는 베냐민을 잃으면 자신

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난날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과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유다의 변화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3년 전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모습은, 그에게 일어난 내면의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죄를 뉘우치고 책임을 지려는 유다의 모습은 요셉의 시험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결국 유다의 진심과 절박함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유다의 변화는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책임의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진대 너희가 이 일을 하라 너희 그릇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스타치오와 살구씨
니라 돈은 너희 손에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너
희 그릇에 도로 넣어져 있던 돈은 다시 너희 손
에 가지고 가서 혹 잘못이 있었을까 하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가서 저 사람에게로 가라” (창세
기 43장 11-13절)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진대'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극심한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유향, 꿀, 향품, 몰약, 피스타치오, 살구씨 등 가나안 땅의 귀한 특산물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한 예물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호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향품과 몰약은 당시 고가의 사치품이자 약재로 사용되

던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곡식 자루에 도로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져가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바시>는 '실수하다', '잘못하다'는 의미로, 야곱이 돈이 다시 들어있었던 것을 '잘못'이나 '착오'로 여기며 정직하게 돌려주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가족의 생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의 불안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 그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다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밥 먹을 것을 보매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 맡은 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점심에 그들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자마자, 감격에 벅차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식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타보아>는 '집으로 오게 하다', '환영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 고위 관료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돈뭉치 때문에 자신들이 잡혀 노예가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돈이 자루에 다시 들어있는 것은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그들의 불안감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집 맡은 자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

을 너희 그릇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오니라” (창세기 43장 23절)

집 맡은 자의 말은 형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요셉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믿는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진정한 안심과 평안을 줍니다. 요셉의 집 맡은 자가 언급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삶의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와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역

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문안하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늙은이가 평안하냐 아직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서 평안하고 아직 살아 계시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아우가 이 아냐 그가 또 이르되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3장 27-29 절)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드디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소생이라는 각별한 혈연관계를 강조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는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13년간 그리워했던 동생을 보는 순간, 요셉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고, 눈에는 눈

물이 그렇거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울 곳을 찾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이르되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창세기 43장 30-31절)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히브리어 <바카>는 '소리 내어 울다'는 뜻입니다. 이 눈물은 베냐민을 다시 만난 기쁨, 형들을 향한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터뜨렸지만, 이내 감정을 억제하고 식사를 차리라고 명했습니다. 애굽 총리로서의 위엄과 책임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자제력과 직업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의 순서대로 자리를 앉혔습니다. “그들이 각기 나이 순대로 그 앞에 앉으매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창세기 43장

33절).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장유유서에 따라 식사 자리에도 엄격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를 정확히 알고 실행했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큰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은 환대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깊은 사랑과 동시에 형제들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식사는 재회와 화해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 때로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숙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내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의 시험대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3장 1-34절

묵상 질문

절박한 선택과 유다의 변화 (창세기 43장 1-10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기로 자청하며 나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장면에서 당신은 유다에게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지려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보이지 않는 섭리 (창세기 43장 11-15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며 애굽 총리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나요?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꿈의 성취와 복합적인 감정 (창세기 43장 26-28절):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하는 순간, 요셉의 어릴 적 꿈이 다시 한번 성취됩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기쁨, 감격, 슬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등 어떤 감정들로 뒤섞였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감춰진 눈물 (창세기 43장 29-31절):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복받쳐 올라 급히 자리를 피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쁨, 슬픔, 회한, 용서 등)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나요?

시험과 배려의 식사 (창세기 43장 32-34절):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 많은 음식을 주며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하거나 관찰했던 경험이 있나요? 시험 속에서도 베냐민을 배려하는 요셉의 마음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삶에 적용

과거의 죄 직면하고 책임지기: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 속에서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과거의 잘못이나 아직 책임지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직면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인내와 희망: 요셉은 13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며 나아가기: 야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성경 퀴즈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자고 설득할 때,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고 말했나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며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드릴 어떤 예물들을 준비하게 했나요?
(세 가지 이상 작성)

요셉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나요?

요셉의 집 맡은 자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의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나요?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 울기 위해 급히 어디로 가서 울었나요?

요셉은 형제들과 식사할 때, 그들을 어떤 순서대로 앉혔나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몇 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나요?

기도문

관계의 회복과 섭리의 하나님, 오늘 요셉과 베

나민의 극적인 재회를 묵상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서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으로 인해 얼어붙은 관계가 있다면, 유다의 변화처럼 제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결국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은잔의 시험: 드러나는 진심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양식이 풍부했지만,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먹을 양식이 바닥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자신의 집에서 환대하며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그리움과 함께, 형들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복잡한 심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죄책감의 깊이와 막내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책임감을 측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 자루에 각기 먹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아귀에 넣고 내 잔 곧 은잔을 그 어린 것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을 넣으

라 하매 그가 요셉의 말대로 하니라” (창세기 44장 1-2절)

요셉은 자신의 집 맡은 자에게 명하여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양식과 함께 그들의 돈을 다시 넣어두게 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곡물을 거래할 때 지불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이는 형제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은잔, 즉 점을 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게비아>라는 신비한 의미를 가진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게비아>는 '컵' 또는 '잔'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점술 행위를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나 기름을 컵에 담아 그림자를 통해 미래를 점치거나, 분실된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점술 행위가 흔했습니다. 총리의 은잔은 단순한 컵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은밀한 계획은 형제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 형들의 죄의식과 베냐민에 대한 진정한 형제애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지 못하여 요셉이 그의 집 맡은 자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나의 은잔을 훔쳐 갔느냐 하라” (창세기 44장 3-4절)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일찍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시므온도 돌아왔고, 베냐민도 무사하며, 양식도 충분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성읍을 멀리 벗어나기 전에 집 맡은 자를 보내 그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비난은 형제들의 양심을 찢어 깊은 혼란에 빠뜨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곡물을 얻고 시므온을 돌려받았기에,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비난은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이 집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창세기 44장 7-8절)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번 자루에 있던 돈까지 정직하게 가져왔는데, 어찌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항변은 돈을 도로 돌려받았을 때 야곱이 '혹 잘못이 있었을까'라며 정직하게 행동했던 가족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주의 종들 중에 이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창세기 44장 9절)

형제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확신했기에,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까지 맹세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도둑질한 자는 죽음이나 노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요셉의 계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 맡은 자는 가장에게서만 은잔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하고” (창세기 44장 10절)

집 맡은 자는 형제들의 자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맏이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이르렀습니다. 형들의 심장은 조여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테지만, 설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수색은 매우 치욕스러운 행위였으며, 자루를 하나씩 열 때마다 형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가 형들의 자루를 뒤져서 맏아들에게서 시작하여 막내에게까지 이르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창세기 44장 12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순간, 형제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는 구절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히브리어 <카라>는 '찢다'는 의미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적인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행이 이제 베냐민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형제들의 절망은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의 그림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가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직면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형제들이 자

신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벌어졌던 과거의 비극을 다시금 경험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각각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아직 그 곳에 있는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창세기 44장 13-14절)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상대방의 권위에 복종함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44장 15절)

요셉의 이 말은 그가 점을 친다는 것을 암시하여, 형제들에게 총리의 신비로운 능력과 권위

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는 형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려 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유다의 간청은 르우벤이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내세웠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기 희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내셨으니 우리와 이 아이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창세기 44장 16절)

유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는 고백은 그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질

렀던 죄가 이제야 밝혀지는 것에 대한 인식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어 <하엘로힘 마차 아본 아베데카>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상황의 우연성을 넘어 신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베냐민 뿐 아니라 모두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주의 종인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창세기 44장 31-33절)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베냐민마저 잃으면 야곱이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히브리어 <나프쉬 케세트 베나프쇼>는 '그의 영혼

이 이 아이의 영혼과 묶여 있습니다'는 의미로, 야곱과 베냐민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그 고통의 재현을 막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 아우'가 아니라 '아이'라는 표현은 베냐민을 연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희생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유다의 간청은 진정한 회개와 책임감, 그리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기적인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구원하려는 메시아적인 그림자를 비춥니다. 이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진심과 변화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제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참된 기독교인은 유다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다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4장 1-34절

묵상 질문

요셉의 마지막 시험 (창세기 44장 1-5절):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고 형들을 쫓아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관계에서 신뢰를 시험하거나,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나

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봅시다.

맹세와 절망 (창세기 44장 7-12절):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당신은 맹세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절망하거나 큰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 (창세기 44장 16절):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나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죄나 잘못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그로 인해 책임져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나요?

유다의 변화와 자기 희생 (창세기 44장 31-33절):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 달리, 이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이 유다의 간청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의 변화된 모습에서 당신은 무

엇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시험의 끝과 요셉의 감정: 형들의 진심과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간청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삶에 적용

죄의 드러남과 회개: 요셉의 은잔 시험은 형제들의 숨겨진 죄책감을 드러내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게 숨겨져 있거나 회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도전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관계와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사랑과 책임의 진정한 의미: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자기 희생을 요구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연단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겪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시간들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믿으시나요?

성경 퀴즈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무엇을 몰래 넣어두었나요?

요셉이 집 맡은 자를 보내어 형제들을 쫓아가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고 나머지는 무엇이 되겠다고

맹세했나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형제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은잔이 발견된 후, 형제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무엇을 찢었나요?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누가 찾아내셨다고 고백했나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고 간청했나요?

기도문

정의와 시험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은잔 시험과 형제들의 진실된 모습을 묵상하며, 당신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서 죄의 문제가 깊이 숨겨져 있거나, 회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관계의 회복과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처럼, 저 또한 사랑

하는 이들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제가 먼저 낮아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연단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정체를 드러내다: 폭발하는 진실



오다의 간절하고 자기 희생적인 간청을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13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형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애굽 시종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총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형제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재회와 화해의 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사적인 감정 표출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러'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콜 아리에>는 직역하면 '

사자의 소리'라는 뜻으로, 요셉의 울음이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라, 고통과 감격이 뒤섞인 격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울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울음은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울음은 단순히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 45장 3절)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어쩌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는 요셉이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 <아니 요세프>는 ‘나는 요셉이다’라는 강한 자기 선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망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눈앞에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

바할>은 '갑자기 두려워하다',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13년 만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살아있는 모습에 대한 충격으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잔혹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찬 요셉의 칼날 아래 자신들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족을 배신한 자에 대한 복수가 당연시되던 분위기였기에, 그들의 공포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놀람과 두려움은 죄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죄의 어둠을 드러낼 때, 우리는 숨겨왔던 모든 죄악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포를 가라앉히고 진정한 화해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야말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진정한 용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셉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죄를 다룸으로써, 더 깊은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여기서 요셉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형들의 죄를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히브리어 <카담>은 '미리 보내다', '앞서 가다'는 의미인데, 이는 요셉이 단순히 애굽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앞서 보내진 '선구자'임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과 민족, 나아가 주변 국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악을 초월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

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6-8절)

요셉은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음을 알려 주며, 자신이 애굽으로 보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때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라압 레파르오>로, 왕의 고문이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애굽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인간의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과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나 불행 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삶과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요셉처럼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야곱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 강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목축 지대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싫어했지만(창세기 46장 34절), 요셉은 그곳이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의 재회를 꿈꾸며, 그들을 보살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

하시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창세기 45장 10절)

이 말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깊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창세기 45장 14-15절)

‘입 맞추며 안고 우니’라는 히브리어 <나샤크 베할라크>는 깊은 사랑과 진정한 화해를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입맞춤은 친밀함과 용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제스처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모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평화의 눈물이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비로소 형들은 요셉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요셉의 용서에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움의 골을 메웁니다.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품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5장 1-15절

묵상 질문

감정의 폭발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시종들을 불러가게 하고 '소리 질러'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격렬한 울음 속에 담긴 요셉의 복잡한 감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삶에서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폭발했던 경험이 있나요?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들의 충격과 두려움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과거 잘못이 예상치 못하게 드러나거나, 누군가의 정체가 밝혀져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용서와 섭리의 선포 (창세기 45장 5-8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형들의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재해석했나요?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불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어

똥게 요셉의 고백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화해의 눈물 (창세기 45장 14-15절):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안고 울 때, 그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등) 이 눈물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삶에 적용

과거의 상처를 섭리로 이해하기: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나 불행했던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깨어지거나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 당신이 먼저 용서하거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기: 요셉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불의를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성경 퀴즈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모든 애굽 시종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나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그 앞에

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 자라”고 말했습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며, 누가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
셨다고 말했나요?

요셉은 애굽에 아직 몇 년의 흉년이 남아있다고
말했나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어느 땅으로 내려오라고 했나요?

요셉이 형들을 안고 울자, 형들은 비로소 요셉
과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기도문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용서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묵상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눈물 흘립니다.

제 삶에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불의로 인해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요셉처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사랑을 내어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야곱의 이주: 약속의 땅을 떠나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형제들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자,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요셉의 가족을 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 애굽 궁중이 이 소식에 들떴을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요셉은 애굽을 구원한 영웅이었으며, 그의 가족을 환대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적인 축복을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바로의 허락은 요셉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셉의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창세기 45장 16-18절)

바로의 환대는 요셉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파라오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환대는 국가적인 차원의 최고 대우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가족을 위해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인 고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 강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목축 지대로, 애굽인들이 목축을 천시했기에 (창세기 46장 34절)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위한 수레와 길에서 먹을 양식을 넉넉히 주어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수레는 값비싼 운송 수단이었으며, 이는 왕실의 권위와 요셉의 지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야곱의 연로한 나이를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수레를 주되 바로의 명대로 하였으니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었더라” (창세기 45장 21절)

형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엄청난 양식과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조심스럽게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창세기 45장 26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리둥절하더니'라는 히브리어 <포가>는 '멍해지다', '정신이 혼미하다', '기진맥진하다'는 의미입니다. 13년간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겨 있던 그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여전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오랜 슬픔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갑작스러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증거들, 즉 야곱을 태워오기 위한 수레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레들은 애굽의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요셉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말하매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창세기 45장 27절)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히브리어 <하야>는 ‘살아나다’, ‘소생하다’, ‘생기를 되찾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 증거들을 보고 야곱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13년 만에 그의 슬픔과 죽음 같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잠겨 있던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역전을 이루시며, 그분의 섭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낙심될 때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28절)

야곱은 '족하도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브>는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의미로,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나타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히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으로, 조상들의 하

나눔을 기억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중요한 이동 앞에서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2-3절)

하나님께서서는 밤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곳에

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리라, 창세기 12장 2절)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을 씻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안과 두려움을 확신과 소망으로 바꿉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병거를 타고 고센 땅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13년간의 이별, 그리고 13년의 고난과 성숙 끝에 이루어진 극적인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창세기 46장 29절)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히브리어 '얼마 동안'은 <오드>로, '아직도' 또는 '꽤 오랫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이 억눌렀던 모든 감정, 즉 어린 시절의 그리움, 잃어버렸던 시간의 아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 또한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모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혈육의 재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창세기 46장 30절)

야곱은 다시 한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다시 만난 것으로 모든 삶의 고통과 인내가 보상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나일 강 삼각주 동쪽 변방에 위치하여 애굽의 문화와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중심부와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별과 재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참

된 기독교인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5장 16절 - 46장 30절

묵상 질문

바로의 환대와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5장 16-20절):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환대하며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약속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요셉의 고난이 결국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야곱의 믿음의 부활 (창세기 45장 26-28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13년간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야곱의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재확인 (창세기 46장 1-4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극적인 부자 상봉 (창세기 46장 29-30절): 요셉과 야곱의 재회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 눈물 속에 담긴 아버지와 아들의 복합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재회는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남이나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삶에 적용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인내: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1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삶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회복과 치유: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재회는 깨어진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은

혜로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아픔과 갈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곡식 자루에서 발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의 기운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였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어디로 마중 나갔나요?

야곱과 요셉이 재회한 후,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 족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기도문

회복과 인도하심의 하나님, 오늘 야곱과 요셉의 감격적인 재회를 묵상하며, 당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불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야곱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
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이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총리의 지혜: 기근 속의 정책



아굽 가족은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나일 강 삼각주의 동쪽에 위치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넓은 초원 지대였고, 애굽인들이 목축업을 천시했기에 (창세기 46장 34절)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며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되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애굽 사회에 안전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애굽 사회는 외부 민족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으나, 총리 요셉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에서 그의 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었고, 그들 중에서 유능한 자들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목축 기술이 애굽에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왕실의 가축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정도로 그들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과 함께, 한 나라의 총리로서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때에 애굽 온 땅에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심하여 땅이 피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약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창세기 47장 13-14절)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까지 기근으로 인해 쇠약해졌습니다. '땅이 피폐하니'는 히브리어 <니크마>로 '황폐해지다', '소진되다'는 의미를 가지며, 극심한 기근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묘

사합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들었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애굽은 파라오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고, 요셉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했습니다. 백성들의 돈이 바닥나자, 그들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소, 나귀, 말 등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으므로, 이를 팔았다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해가 다함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는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내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토지와 몸을 가지고 식량을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오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7장 18-19절)

백성들은 돈과 가축마저 다 바치고 나자, 이제 자신의 몸과 토지를 내어놓으며 양식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는 고백은 그들의 절박함과 극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종'은 <에베드>로, '노예' 또는 '종복'을 뜻합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기근이나 빚 때문에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으며, 왕에게 속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의 5분의 1(20%)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시 애굽의 토지 소유권과 세금 제도를 재편하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대 애굽 역사의 특정 시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성경 기록의 역사적 고증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 온 땅의 토지를 바로에게서니 애굽의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다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의 것이 아니었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으로 그들이 받은 녹으로 먹으므로 자기 토지

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창세기 47장 20-22 절)

이 정책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로의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 구조를 파라오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예외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대 애굽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신성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이 정책을 통해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을 강화하고, 왕실의 재정을 확고히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권력 집중을 이룬 탁월한 행정 정책이었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당신들의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당신들은 그 땅에 뿌리라 소출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고 오분의 사는 당신들이 차지하여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당신들의

양식으로도 삼고 당신들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창세기 47장 23-24절)

요셉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생존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갖도록 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공정한 비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작농의 몫은 보통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였으므로, 5분의 4를 백성들이 갖도록 한 요셉의 정책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감사하며 요셉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 (창세기 47장 25절)

백성들은 자신들을 살린 요셉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미래를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권위를 강화하고 애굽을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죄수로 전락했던 요셉은 이제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히 기근을 해

결하는 것을 넘어, 애굽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요셉처럼 위기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생존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리더십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당신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신 것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선용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47장 1-26절

묵상 질문

가족을 돌보는 리더십 (창세기 47장 1-6절):
요셉은 총리가 된 후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돌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기근 속의 경제 정책 (창세기 47장 13-17절):
애굽에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돈과 가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당신은 이 정책이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어떤 지혜로운 경제적, 행정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몸과 토지를 바치는 절박함 (창세기 47장

18-19절):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과 토지까지 바치며 양식을 구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당신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내어놓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나요?

토지 제도 개편의 의미 (창세기 47장 20-26절): 요셉은 기근을 통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정책이 애굽 사회와 바로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책에서 보이는 요셉의 지혜로운 통찰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성들의 감사와 충성 (창세기 47장 25절): 백성들은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셉의 리더십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나요? 당신의 리더십이나 봉사를 통해 다른 사

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신뢰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삶에 적용

위기 속 리더십 발휘하기: 요셉은 국가적인 재앙인 기근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 국가를 강화했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요셉처럼 침착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공공의 선을 위한 정책과 희생: 요셉의 경제 정책은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희생(토지 양도, 세금)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생존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위해 희생하거나,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나요? 공공의 선을 위해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리더: 요셉의 모든 정

책과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의 어느 땅에 머물게 했나요?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무엇을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나요?

돈과 가축마저 다 바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내어놓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토지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나요?

애굽의 모든 토지 중, 요셉의 정책에서 예외로

인정되어 팔지 않아도 되었던 토지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몇 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명령했나요?

기도문

지혜와 통찰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기근 속 지혜로운 정책을 묵상하며, 당신의 놀라운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당신의 지혜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공공의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과 자원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야곱의 마지막 축복: 언약의 계승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서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17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졌던 13년의 고난과 대비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평화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남기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십칠 년이라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세기 47장 28-29절)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라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던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생

식 기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의 자손을 통해 대대로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종에게 이와 같이 맹세하게 했습니다(창세기 24장 2절).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믿음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매장은 매우 중요한 풍습이었으며, 가족 묘지에 함께 묻히는 것은 사후에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특히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었습니다(창세기 49장 31절). 그의 이러한 소원은 물리적인 땅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 땅의 안락함이나 화려한

애굽의 장례 풍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가나안 땅에서 내가 라헬을 잃었는데 슬프게도 에브랏 길에서 내게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창세기 48장 7절)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장자의 두 배 되는 축복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조부가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그 손자들에게 가문의 상속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서 잃었던 라헬을 떠올리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그 슬픔 속에서 태어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번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더라” (창세기 48장 14절) 요셉은 므낫세가 맏이이므로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으려 했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엇갈려’라는 히브리어 <식켈>은 ‘교차시키다’, ‘엇갈리게 하다’는 의미로, 야곱이 의도적으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유대인에게 오른손은 축복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거절하며 이르되 내 아들이 그리 마라 이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고 이 아우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창세기 48장 19절)

야곱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장자의 전통을 깨

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계승은 인간의 기준이나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도 장자가 아닌 자를 통해 언약이 계승되었던 역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했듯이).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이나 인간적인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이후 야곱은 열두 아들 각자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남겼습니다. 각 아들의 성격과 미래 후손

들의 운명,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은 왕권을, ‘지팡이’는 통치권을 상징하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것을 암시합니다. ‘실로’는 히브리어 <של로>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화의 통치자’, ‘그가 속한 자’, 혹은 ‘안식’을 의미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유대인 랍비 문헌에서도 ‘실로’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아넘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들이었지만,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아버지

의 깊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인간의 연약함과 과거의 죄를 뛰어넘어 역사하며,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죄인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유다의 삶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여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에게 축복을 마친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 33절)

히브리어 <네에사프 엘 아모>는 직역하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는 의미로, 단순히 죽었다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조상들의 영혼과 합쳐졌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해서 존재하며,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다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 위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야곱의 시신은 애굽의 최고급 방부 처리 (40일 소요)를 거쳤으며, 장례 행렬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과 이스라엘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성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가진 영향력과 야곱에 대한 깊은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의 장례 풍습은 매우 정교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를 통해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애굽

땅에 잠들었지만, 그의 영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는 단순히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부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떤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신가요?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47장 28절 - 49장 33절

묵상 질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창세기 47장 29-31절): 야곱은 왜 요셉에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요청이 보여주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에게는 어떤 가치나 믿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가요?

장자권의 변화와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8장 1-20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처럼 삼고 축복하며, 장자인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기대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유다 지파의 축복과 메시아 예언 (창세기 49장 8-12절): 야곱은 열두 아들 각자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어

떤 특별한 축복과 예언을 주었나요? 과거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주도적이었던 유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나요?

언약의 계승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삶에 적용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물질적인 것 외에, 당신의 가족이나 공동체에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믿음 안에서 삶의 마

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음으로써 장자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이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선한 길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넘어선 축복: 유다는 과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를 통해 야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

야곱은 애굽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나요?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어디에 장사해 달라고 간청했나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며 더 큰 축복을 주었나요?

야곱은 열두 아들 중 누구의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메시아의 계보와 관련된 지파)

야곱은 모든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둔 후 어디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 야곱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어디에 안장했나요?

기도문

언약과 유산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

복과 죽음을 묵상하며, 당신의 신실한 언약과 영원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육신적으로는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저의 믿음과 삶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운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의 실패를 넘어선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꿈의 완성: 믿음의 계승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 요셉의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이제야 복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과거의 죄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창세기 50장 15절)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을 기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어 <하솜브>는 '생각하다', '계획하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요셉을 해치려 했던 악한 의도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존재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지자 형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었기에, 형들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

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세기 50장 16-17절)

형들은 야곱의 유언을 핑계 삼아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요셉에게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냈으며, 여전히 두려움과 자기 변명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허물과 죄'로 표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다시 울었습니다. 히브리어 <바카>는 '울다'는 뜻인데, 이 눈물은 형들의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을 팔아넘긴 형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고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타인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긍휼히 여기며, 진정한 용서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형들의 불안은 죄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에 갇혀 있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회복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약함과 두려움을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9-21절)

요셉의 대답은 용서와 섭리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하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브리어 <하테하트 엘로힘 아니>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는 강력한 수사 의문문으로, 인간적인 복수심은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히브리어 <하샤브>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마저도 선한 목적(많은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는 형들의 죄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리밤>은 '마음을 위로하다',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다'는 의미로, 진심 어린 위로가 형들의 깊은 죄책감을 녹여주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약속하며, 삶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셉의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형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과 죄책감을 마침내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즉 원수 된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은 이처럼 용서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께

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고센 땅에 거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집에 거주하며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백십 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양육되었더라”(창세기 50장 22-23절)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 '요셉의 무릎 위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품에 안고 직접 돌보았다는 깊은 유대감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

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산 증거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4-25절)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돌보시리니'라는 히브리어 <파코드 이프코드>는 '정녕 돌아보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과 반복적인 강조를 담은 표

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전적으로 믿는 요셉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시켰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즉 '믿음의 계승'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유해를 약속의 땅에 묻는 것은 단순한 풍습을 넘어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해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 남아,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증표가 됩니다. 이는 약 400년 후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으로 성취됩니다(출애굽기 13장 19절).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신을 향 재료로 처리하고 입관하는 것은 왕족이나 고위 관리에게 행하던 최고 수준의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입관하였더라'는 히브리어 <하탄>은 '미라로 만들다'는 뜻으로, 요셉의 시신이

애굽 왕실의 방식으로 미라화되어 보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인들도 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묻혔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아 숨 쉬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조화되어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 교재

본문: 창세기 50장 15-26절

묵상 질문

사라지지 않는 죄의 두려움 (창세기 50장 15절): 야곱이 죽자 형들은 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은 그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나요?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용서의 선포와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 50장 19-21절):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하며,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의 용서가 가진 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셉의 이 고백이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나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요셉의 고

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나 불행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번성하는 삶과 믿음의 유산 (창세기 50장 22-23절): 요셉은 애굽에서 장수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면에서 '꿈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꿈의 완성'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유언과 믿음의 계승 (창세기 50장 24-25절):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유언이 보여주는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삶에 적용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요셉의 온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실패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봅시다.

영원한 소망을 향한 믿음: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해골을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을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당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

땡게 전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성경 퀴즈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나요?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할 때, 누구의 명령을 언급하며 간청했나요?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하며, 그들의 악한 계획을 누가 선으로 바꾸셨다고 선포했나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 몇 세까지 살았나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어디로 메고 올라가 달라고 맹세시켰나요?

요셉의 몸은 죽은 후 어떻게 처리되어 애굽에서 입관되었나요?

기도문

섭리와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 마지막과 그의 위대한 고백을 묵상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당신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 또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전인생

초판발행 2025. 7. 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종!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